

공개된 정보

2019년 1월 11일 오후 6시 40분, 강원도 홍천.

산장 앞에서 두 남자가 눈을 맞으며 서 있다. 두 사람은 10분 전 이곳에서 만났다. 먼저 도착한 사람의 이름은 신희성, 자체개발 스마트폰인 'U' 시리즈와 이 기기의 전용 앱인 '기억금고'로 유명한 유희전자의 사장이다. 나중에 도착한 사람의 이름은 김용희. 유명대학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다. 두 사람은 오늘, 보험회사 UH라이프의 부회장 최시원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다. 하지만 문은 잠겨있었고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다.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할 무렵,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산장 진입로 끝에서 한 여자가 뛰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 다 아는 얼굴이다. 최혜민, 시원의 여동생이다.

얼마 전만 해도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병원을 그만두고 시원의 비서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다. 두 사람 앞까지 뛰어온 혜민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걸었다.

“안 들어가세요? 부회장님 안에 있을 텐데?”

용희는 묵묵히 고개를 저었고, 희성이 대답했다.

“없는 모양이던데? 문이고 창문이고 다 두드려 봤지만 대답이 없어. 전화도 안 받고.”

혜민은 고개를 가우뚱하더니 현관 문고리를 잡고 두어 번 당기려고 시도했다. 문은 확실히 잠겨있었다. 혜민은 문 열기를 포기하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두꺼운 갈색 점퍼에 털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에는 털이 덥수룩한 남자가 걸어왔다. 소개받지 않아도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았다. 산장 관리인 패션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런 차림일 것이다. 관리인은 묵묵히 스페어 키를 꺼내 문을 열었고, 일행은 관리인을 따라 현관 안으로 들어섰다. 안은 깜깜했다.

“어? 불이 나갔나?”

혜민이 중얼거리는 사이 관리인이 누전 차단기를 올렸다. 금세 거실이 환해졌다. 그때 혜민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혜민이 현관에서 스마트폰을 찾아 핸드백을 뒤지는 사이, 용희는 냉장고를 뒤적거렸고 희성은 빈방으로 들어갔다.

“네 부회장님. 여보세요?”

통화 중인 혜민의 목소리에 희성이 방에서 불쑥 머리만 내밀고 물었다.

“형이야? 어디래?”

“모르겠어요.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나고 끊겼는데?”

그때 용희가 욕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관리인을 불렀다. 그때까지 말없이 차단기만 만지던 관리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신발을 벗고 들어와 주머니에서 스페어 키를 꺼냈다. 욕실이 열리자, 용희가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도 바로 따라 들어갔다. 시원은 욕조 속에 눈을 감고 누워 있었고, 욕조에는 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시원에게 다가가려는 사람들을 제지한 것은 희성이었다. 희성의 눈은 욕조 바깥의 콘센트로 향해있었다. 콘센트에는 2개의 스마트폰 충전기가 꽂혀 있었고, 그 반대쪽 끝은 물이 찰랑거리는 욕조 안에 들어가 있었다. 관리인은 욕실 전기를 차단하고 오겠다고 다시 차단기로 돌아갔다. 관리인이 돌아오자, 혜민은 서둘러 시원에게 다가가 어깨를 흔들었다. 용희는 패닉 상태에 빠진 혜민을 제지하고 시원의 몸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의사로서 사망 진단을 내렸다. 사인은 심장마비. 사망 시간은 방금 전. 어느새 밖에는 눈이 쌓여있었다.

관리인이 곧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실적으로 다음날 오전은 되어야 출동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눈이 제법 쌓여 있어 차가 산길을 오르기가 힘든 데다, 시간도 시간인지라 밖은 어두웠다. 일행은 거실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각자 한 명씩 방을 잡아 들어갔다. 가려온 짐을 방에 대충 풀어놓고, 사람들은 거실에 다시 모였다. 이때가 8시. 관리인은 늦은 저녁 식사를 만들기 시작했다. 다들 식욕은 없었지만 일단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그때, 모든 사람의 스마트폰이 울리며 정적을 깼다. 모두에게 똑같은 문자가 와 있었다. 발신 번호는 최시원의 번호. 내용은...

“5명이 모여서 1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살인자는 몇 명일까요?”

모두가 깜짝 놀라 다시 욕실로 돌아갔지만, 시체는 그대로 있었다. 죽은 자가 문자를 보냈단 말인가? 그보다, 살인자라고?



신희성(37)

신희성(37) 남

→ 당신은 범인이 아니다.

* 비밀: 유흥전자 스마트폰 충전기의 누전 및 과전류 문제로 시원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다.

* 승리조건: 1. 범인을 찾아낸다. 2. 범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들이지 않는다.

당신의 행적

당신은 전자 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를 주로 개발하는 유흥전자의 사장이며, 최시원의 이종사촌 동생이다. 유흥전자는 UH그룹 산하는 아니지만 UH그룹 계열사의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그것은 2016년 당신의 회사가 시장에 내놓은 앱 '기억 금고' 때문이었다. '기억을 선물한다'라는 콘셉트로 서비스를 시작한 이 앱은, 평상시에는 일기처럼 사용하다가 필요할 때마다 특정 일자를 선택해 기억 다운로드 코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코드를 통해 특정일의 기억을 다운로드받거나 타인과 공유할 수 있으며, 기억 송신 후 2~3일간은 사용기기에 송신기록이 남는다. 이 새로운 콘셉트의 앱은 유흥전자의 휴대전화 브랜드인 'U' 시리즈의 전용 앱으로 출시되었는데, 기억 금고의 히트도 'U' 시리즈도 시장에 순식간에 확산되었다.

이 앱에 투자한 것이 보험회사인 UH라이프와 제약회사인 UH제약이다. 두 회사가 이 투자를 통해 얻고 싶었던 것은 정보의 공동 관리였다. 바로 기억 금고에 쌓이는 데이터들, 즉 고객의 기억 관리를 협력관계에서 운영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이 음흉한 거래를 받아들였고, 기억 금고는 UH그룹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아 확실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 후 2년 이상 신장물을 갹신하며 승승장구하던 유흥전자였지만, 최근 고민이 생겼다. 'U' 시리즈 전용으로 출시한 급속 충전기에 누전과 관련된 불량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다. 1만 개 중 한 개 꼴이고 누전의 범위도 미미했지만, 상황에 따라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다행히 시장에 내놓자마자 결함을 알아차렸기에, 알려지기 전에 전량 회수하면 별일 없을 수도 있다. 문제는 구실이다. 그런데 며칠 전, 시원이 연락을 해왔다.

“요즘 걱정하는 게 있지? 내가 해결해줄게.”

1주일 전, UH라이프에 찾아간 당신은 시원을 독대했다. 시원은 정작 그 '걱정거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꺼내지 않고, 갑작스럽게 영혼한 제안을 던졌다. 그 제안은 UH그룹 가문의 다섯째가 운영 중인 UH보안과의 합병. 그것도 사실상 흡수합병을 통해서 UH그룹 산하에 UH전자를 세우자는 것이다. 대표이사로 겸직은 사람은 바로 최시원. 사실상 회사를 할값에 팔라는 제안이다. 당신은 화를 버럭 냈지만, 시원은 언젠가처럼 여유 있는 표정으로 말했다.

“진정해봐, 합병을 하건 말건 어차피 UH전자는 단독으로라도 세워질 거야. 그게 너한테 좋은 일은 아니잖아? 게다가...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시원은 웃으며 찢어낸 잡지 페이지 하나를 건넸다. 페이지에 있는 기사는 해외의 스마트폰 사고에 대한 것이었다. 육조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다가 갑작스런 사례들을 열거하며, 충전기 자체의 결함도 의심해보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페이지를 건 당신의 손이 떨려왔다. 이진 틀림없이 협박이다. 합병 제안을 끝내 거절한다면, 투자금을 빼는 것은 물론이고 유흥전자를 밝기 위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식은땀을 흘리는 당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시원이 말했다.

“걱정 마. 이 건만 처리되면, 모든 문제를 정리할 수 있어.”

소름이 돋았다. 모두 정리할 수 있다는 말은 5년 전에도 들은 적이 있다. 5년 전, 시원의 재어머니이자 해민의 친어머니인 양주희가 죽었다. 자살이었다. 그때도 시원은 뭔가를 '정리'하려 들었다. 주희는 당시 서비스를 막 시작한 유흥전자의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는데, 그게 화근이었다. 양주희의 통화, 문자를 비롯해 통신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지우라는 것. 그것이 시원의 제안이었다. 그날 이후로, 이 자의 '정리'라는 건 언제나 뒷맛이 씁쓸했다.

‘보험으로 들어둔 그림... 까야 하나?’

당신은 어떤 보험을 들어두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보험이란, 당신이 모아둔 UH그룹의 뒤가 구린 기록들이다. 그중에는 5년 전 일에 대한 증거도, UH그룹의 기억 금고 남용에 대한 증거도 들어있다. 그 증거들이 있는 공간은 다름 아닌, '기억 금고' 그 자체. 사장의 특별한 조치라도 없는 한, 기억 금고의 데이터는 슈퍼관리자라 해도 삭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은 머리에서 지워졌다. 그 증거들은 협박이 되지 않는다. 전부 당신 자신의 범죄사실이기도 하니까. 고개를 떨군 당신에게 시원은 오늘 이 산장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했다. 소개시켜줄 사람도 있다면서. 시원의 집무실에서 나온 당신은 시원에게 받은 찢어진 페이지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기자의 이름은 유진영. 매체가 위클리메디컬인 게 다행이다. 당신은 위클리메디컬 편집장을 통해서 유진영 기자와 만날 약속을 잡았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순순히 이 산장에 왔다. 산장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산장을 한 바퀴 돌면서 산장 뒤쪽의 창문까지 두드려 보았지만 소식은 없었다. 한참 기다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도착했고, 당신은 그들과 함께 산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 추가 규칙: 당신은 UH그룹과 기억 금고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게임 중 말할 수 없다.